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의 부여(扶餘) 고적에 대한 재해석과 ‘관광명소’ 화

최석영*

1. 서론

1) 문제설정

식민지 지배 역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식민지 상황(colonial situation)에 의해 규정된 식민지 문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 해석에 따라 식민지 문화를 둘러싼 기술(記述), 위상과 성격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식민지 행정 관료와 ‘식민지 학자’ (여기에는 식민지 모국의 학자뿐만 아니라 식민지 출신의 학자도 포함된다)들이 식민지 문화를 기존의 의미와는 새롭게 또는 다르게 해석하여 식민지 문화의 의미를 변화시켰다. 허스코비츠(M. J. Herskovits)는 이를 재해석(reinterpretation)이라고 불렀다(John H. Hamer 1994; 최석영 역 1995: 489). 햄머(John H. Hamer)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된 문화가 식민지 시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사실(事實)’로서 받아들여지는 경향조차 있었다(John H. Hamer 1994; 최석영 역 1995: 496). 식민지문화에 대한 재해석과 그것이 수용되는 배경에는 물론 식민지권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식민지 지배 측에서는 식민지 문화에 대한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재해석의 유포와 각인을 통하여 식민지인들이나 식민지 모국인들이 식민지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설명 도구로도 이용하였다.

식민지적 상황은 지배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순종심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모순적이면서 다각적인 담론들을 만들어냈다. 일본은 조선과 그들의 관계사를 ‘친연성’ 뿐만 아니라 그들 또는 타국의 지배를 받았던 타율적인 역사로 조선사를 해석·서술하려고 노력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과거의 정치학(a politics of the past)’ 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식민지적 기획’에 과거는 유용한 도구로 동원되어 양국 고대 관계사에 대한 문헌적 고찰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유적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10년을 전후로 조선(강점 이전 대한제국)과 일본 간 특히 언어·종교면에서의 ‘친연성’에 바탕을 둔 동화(同化) 담론들이 생산, 유포되었다. 조선과 일본의 ‘동조론(同祖論)’ 또는 양(兩) 문화의 ‘동원론(同源論)’ 등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동화담론은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내선일체(內鮮一體)”로 수렴 표상되었다. 그와 같은 친밀성 뿐만 아니라 평양·가야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발굴을 통해서 는 조선 역사의 타율적인 이미지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최석영 1997; 박현수 1998; 김광익 1998; 권태익 2001 참조).

그 같은 일련의 실천은 식민지 통치에 있어서 일종의 ‘문화담론 전략’과 같은 것이었다. 1916년 이후 유물 및 고적의 ‘보존’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관심은 식민지 문화에 대한 권력행사를 통한 장악과 통제에 근본적인 의도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아울러 식민지 문화에 대해 새로운 해석 또는 재해석을 가하여 식민지 문화의 ‘상(像)’을 만들어 내려는 데에 있었다. 이는 ‘역사의 재구성’ 작업과 같은 것으로 서술자(또는 해석자)의 주관 여하에 따라 해당 역사 사실의 증거가 불충분 또는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거에 실재하였던 ‘사실(史實)’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어 내면화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부여가 1920년대 후반 이후 단순한

백제의 고도(古都)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내선일체의 상징' 또는 '영지(靈地)' 라는 이미지와 함께 전국의 관광명소로 부상한 역사적 상황을 고찰하는 데 본고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여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후반 이후의 일이었다. 부여가 관광명소로 부상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중심 주체는 1929년 기존의 부여 고적보존회를 계승하여 발족한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이었다(이지원 1993; 최석영 2002).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1915년 경주고적보존회를 비롯하여 각 지방에 고적보존회(또는 보승회, 현창회)가 발족되었는데, 그 동안 학계에서는 그러한 조직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한 예로 부여고적보존회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립부여박물관의 뿌리는: 인용자주) 백제 문화와 유적을 보존하려고 1929년에 부여지방 사람들이 만든 '부여고적보존회'에 있다"(한국문화유산답사회 편 1995: 213-214)라는 기술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존회의 주제에 대해서도 "부여지방 사람"이라고 서술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은 연구상황에서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가 식민지 상황에서 부여 문화의 '발견' 과 재해석을 통하여 부여가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되는 이른 바 '재해석의 정치학' (a politics of re-interpretation) 을 고찰하는 일은 연구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방법적으로 부여의 고적 가운데 어느 것들이 '선택' 되었고 그것들에 대해 기존의 사실과는 다른 어떤 재해석을 가했고 그 결과로서 그러한 고적들을 '명소(名所)' 또는 '성소(聖所)로 공식화하였는가를 살피고, 아울러 해방 이후 그 재해석에 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에 주목한다.

본고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우선 현지조사의 목적은 2002년 4월 20일 현재

부여의 사적들에 대한 공식적인 '기술(description)' 과 일제 식민지 상황 하에서 해당 사적들에 대한 '해석' 과를 비교하여 그 동안의 해석 변화를 살피는 데 있다. 문헌조사는 식민지 상황에서 부여문화에 대한 조사·연구에 깊이 관여하였던 백제관(百濟館) 관장 오사카 긴타로(大坂 金太郎)가 남긴 문헌과, 그의 후임 스기 미츠로(杉 三郎)의 글과 「부여고적안내기」 그 외 문헌 등에 토대를 두었다.

2.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의 발족과 역할

부여고적보존회(扶餘古蹟保存會)가 발족되기 이전에는 부여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회자되는 데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물산공진회는 일제가 '시정(施政) 5년'을 기념한다는 명목 하에 경복궁 안에서 1915년 9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최한 일종의 박람회였다(최석영 2001; 김태웅 2002). 부여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 노력한 사람은 1915년 당시 충청남도 장관 고힌라 니쵸(小原新三)였다. 그는 나라현(奈良縣)의 사무관 시절 아스카(飛鳥)·나라조(奈良朝) 문화와 밀접하다는 백제의 역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백제의 사적(事蹟)과 부여의 명소구적(名所舊蹟)』(발행자 부여고적보존회 土井禮作: 후술)을 상재하였고, 조선물산공진회 때에는 디오라마로 부여 8경(八景)¹⁾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

1) 부여 8경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순찰사 김홍욱(金弘郁)이 부여 8경으로서 천정대, 조룡대, 낙화암, 자운대, 반월성, 고란사, 대왕포, 삼층사를 선택한 이래 대왕포와 삼층사 대신에 평계탑과 파진산(破陣山)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청풍정, 대왕포, 부산(浮山), 송월대, 영월대, 의열사, 석탄야(石灘野)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었지만(재단법인 부여사적현창회 1934: 14-15), 1926년 당시의 부여 8경은 평계탑, 부소산, 고란사, 낙화암, 백마강, 수북정, 규암진(窺岩津), 구룡평(九龍坪)이었다. 오종섭

나 박람회는 개최기간의 한정 등을 고려할 때 부여를 '홍보' 하는 데 한정적인 효과에 그친 것이고 부여에 대한 지속적인 이미지의 생산과 유포는 1929년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의 발족을 기다려야 했다.

1915년에 발족된 부여고적보존회가 1929년 2월 20일에 조선과 일본의 유지들의 기부금에 의한 운영방식인 재단법인으로 변경(부여군 1929, 宗 제6호 인가)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운영상의 재정난이었지만, 재단법인으로의 변경이 조직 확대 또는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운영상의 재정난 타개 외에 식민지 통치의 명분을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 1928년 재단법인으로의 변경 「진정서」 및 「취지서」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특히 백제를 일본과 인연이 깊은 땅, 일본의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백제와 일본과의 친밀한 관계가 두드러지게 강조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부여고적보존회의 재단법인화는 궁극적으로는 부여의 사적명승에 대한 '보존'을 통하여 점차로 강조되고 있었던 “내선일체(內鮮一體) = 백제와 일본과의 “순치보차(脣齒輔車)”(부여군 1929)의 관계를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나온 움직임이었다.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변경된 부여고적보존회의 조직과 역할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우선 회장에는 충청남도지사, 부회장에는 충청남도 내무부장직, 전무이사에는 부여군수로 임명하고 사무소는 부여군청 안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는 관변적 성격의 조직이었다. 물론 그 이전의 부여고적보존회도 회장은 홍한표 부여군수, 부회장은 수집가 일본인 토이 레이사쿠(土井禮作), 부여군민 대표로서 스기 미츠로(杉 三郎)와 교육운동가 김종흠(金鍾翕)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관변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재단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조직의 확대와 함께 보다 권력기구화되었다.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에서는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사(關係史)를 나타내는 고적의 보존, 유물의 수집, 고적유물 조사 및 연구·발표, 관람자 편의를 위한 제반 설비의 정비 등에 사업의 중점을 두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㉞ 영월대(迎月台), 천정대(天政台)를 보존하고 ㉟ 석탑, 삼충사(三忠祠), 임천 대조사의 미륵, 무량사 극락전 및 고란사를 개수하고 ㊱ 유람선을 구입·운용(1927년 구입)하고, 안내 자동차를 구비하고, 고적 사무 및 안내에 종사할 직원을 채용하고, 부소산 통로를 개수하여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㊲ 기타 백제여관 및 공원을 설치하며, 화월정(花月亭)²⁾을 건설하고, 안내도 및 안내기(案内記)를 발간하고, 부소산을 보호한다는 등의 사업계획을 세웠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의 사업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권력이 만들어낸 부여의 관광명소화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 보고자 한다.

1) 문화관광의 토대

우선 부여고적보존회가 재단법인으로 승인 신청을 제출하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의 구비조건으로서 관광지에 용이하고 편리한 접근을 고려하여 강경, 논산, 대전의 각 정차장에 부여까지의 교통편, 명소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부여군 1929). 그 결과 1934년 부여까지의 교통편을 보면 철도(호남선과 경부선)와 정기 운행의 자동차를 함께 이용할 수 있었다.³⁾

2) 화월정이 이후 백화정(百花亭)으로 개칭된 것으로 보인다.

3) 호남선(1914년 1월 개설)을 이용하면 논산이나 강경에서 하차하여 자동차(소요시간 1시간/1원)로 이동하는 경로였으며, 경부선을 이용하면 대전이나 조치원 또는 천안에서 하차하여 자동차로 공주를 경유하여 부여에 도착하는

관광명소의 여건 가운데 교통편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의 확보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가 부여에 관광명소로서의 여건들을 갖추기 이전에는 부소산록에 2층의 일본식 송가(松家: 마츠야) 여관, 조선식 대흥(大興)여관과 부양(扶陽)여관 등 여러 곳이 운영은 되고 있었다.⁴⁾ 그런데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에서는 송가여관이 협소하여 탐승단(探勝團)이나 시찰단, 그 외에 중요 인사들이 머물 숙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백제여관의 건축을 계획하였다(부여군 1929).

관광명소의 또 다른 요건이 관광객들의 관람편의를 위한 시설의 확

경로였다. 논산과 강경에서 부여까지는 하루 4회 자동차가 운영되었으며 대전, 천안, 조치원에서 부여까지는 하루 각각 4회, 3회, 7회 자동차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27년 부여를 답사한 이시다 시게사쿠(石田茂作, 당시 나라제실박물관 감사관)에 의하면 논산에서 부여까지의 교통편이 하루 1회, 그것도 오전 11시에 논산을 출발하여 부여에 도착하는데 약 5시간이 소요 되었다고 한다(石田茂作 & 高橋健自 1927: 50-51). 소요시간은 대전, 천안에서 공주까지는 2시간(1원 60전), 조치원에서 공주까지는 1시간(1원 15전)이 소요되는 거리였다(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 1934: 79-80). 참고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승합자동차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버스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포드 8인승의 소형이었다. 이와 같은 승합자동차의 영업은 1912년 8월 대구 거주의 오즈카 긴타로(大塚金太郎)가 대구-경주-포항 사이를 부정기적으로 운영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한다(서울특별시 2000: 281-286).

- 4) 마츠야(松家) 여관에는 주로 일본인들이 묵었던 곳으로 보인다. 사세 나오에(佐瀬直衛)의 『万二千峰』(1939: 179) 참조. 사세 나오에는 학무국의 사회교육과 촉탁으로서 총독부박물관 관장도 수행한 인물이다(『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40년 7, 8월).

해방 후 1960년대 여관시설을 보면 부여호텔 외에 부영(扶永)여관, 백제여관, 부창(扶昌) 여관, 개룡여관, 화신여관, 금성여관, 경주여관, 문화여관이 있었다고 한다(홍사준 1961: 171). 해방 전의 여관들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충이다. 부여고적보존회가 백마강의 관람편의를 위해 1927년에 유람선을 구입·운영하고 있었다.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에서는 1929년에 이보다 큰 대형의 유람선 구입을 계획하였다(부여군 1929). 1934년 당시의 유람선 운영상황을 보면, 소형과 대형의 유람선 중 하나는 고란사 밑에서, 또 하나는 구교리에서 출발하였다.⁵⁾

물론 1929년 이후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의 부여 관광명소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이전에 부여의 관광 촉진을 위한 흔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의 노력은 부여 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1925년 언론사가 주최한 「부여탐승단(扶餘探勝團)」은 일반인들 사이에 부여 이미지를 유포·확산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것은 동아일보사의 5개 지국(전주, 김제, 이리, 군산, 강경)이 연합하여 1925년 8월말까지 백제의 고도 부여탐승단을 모집하여, 9월 5일에 출발하는 1박 2일의 고적탐방이었다. 이들 탐승단들은 첫 날 각 지역에서 출발하여 이리에 총집합한 후 강경, 논산을 거쳐 은진 미륵사, 백제릉, 옛 성터를 답사한 후 부여에 도착하여 백마강의 달을 구경하는 일정이었다. 그 다음 날에는 부여의 진열관(백제관을 말함), 유인원 비각, 군창지터, 반월성, 천정대, 사자루, 낙화암, 고란사, 조룡대, 수북정, 자온대 등을 답사한 후 금강을 거슬러 강경에 도착하여 귀가하는 일정이었다(동아일보 1925년 8월 22일자). 1928년 7월에는 동아일보 대전지국에서 「부여탐승단」을 모집하였는데, 7월 28일부터 출발하여 「부여 8경」을 탐방하는 코스였다(동아일보 1928년 7월 17일자).

또한 언론에서는 탐승단의 모집뿐만 아니라 「부여 8경」을 자주 소개함으로써 일반 사람들 사이에 명승고적지로서의 부여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1920년대에 동아일보사에서는

5) 현재에도 부여유선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람선 선착장 위치는 고란사 밑과 자온대 두 곳이며 편도 또는 왕복으로 운행되고 있다.

「부여기행」(필자 미상 1928년 10월 23일-10월 25일), 「부여 8경」(박노철 1926년 5월 16일-23일)을 소개하여 명소로서의 부여 이미지를 일반인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실제 1920년대까지만 해도 거론되고 있던 주요 관광명소들이 금강산, 평양, 경주, 동룡굴(螻龍窟), 해운대 정도였다는 것을 고려하면(佐藤作郎 1931: 55), 부여가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언론의 역할과 함께 1929년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가 출현한 이후였다.

2) 고적의 수리(修理)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에서는 문화관광의 토대로서 앞서 언급한 교통·숙박시설·관광편의 시설의 확보와 함께, 어떤 관광내용을 갖출 것인가에 역점을 두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여의 고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하는 문제였다.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는 다음과 같은 고적들을 선택하여 보존 이유와 함께 수리, 정비에 나섰다. 영월대지(迎月台趾)와 천정대지(天政台趾), 가림성지(嘉林城趾), 삼충사(三忠祠), 임천 대조사(大鳥寺)의 미륵(彌勒), 고란사, 무량사의 극락전이 바로 그것이었다.

우선 일반인들이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터를 선택하여 그 흔적을 표시하였다. 영월대지와 천정대지와 가림성지가 그것이다. 영월대지가 위치한 곳이 1929년 당시 민유지였기 때문에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가 이를 매수하여 백제의 성시(盛時)를 표시하였다. 「정사암(政事岩)」으로 일반인들 사이에 알려져 있던(『신증동국여지승람』 부여현 고적조) 천정대지의 바위에 「천정대」라는 3자를 새기고 백제의 재상 임명방식을 설명하였다. 물론 천정대에 얽힌 이야기는 『世宗實錄地理志』(1454년)에 처음 등장하고 있지만 이를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에서 이를 시각적으로 공식화하였다는 점에서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가림성지에 대해서는 백제 당시 난공의 유

곽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표지판을 세웠다.

다음으로 백제의 '구국' 활동과 관련된 삼층사를 보존하는 일이었다. 부여면 용정리에 묘지와 비석 등이 있는 삼층사는 백제가 나당연합군과의 전투에서 구국의 인사를 제사지내는 곳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입구 문만 있을 뿐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백제의 불교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사찰들을 보존하는 일이었다. "임천미륵"이라 칭하는 임천 대조사 미륵(전체 높이 33척)과 백제왕의 명복을 기원하는 사찰 고란사, 규모나 구조에서 나라현(奈良縣)의 동대사(東大寺)를 방불케 하는 외산면의 무량사 극락전에 대한 개수·보존 등이 그것이었다.

이와 같은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의 부여 관광명소화 노력에 언론에서는 대외적으로 부여의 이미지를 심는 데 일조하였다. 예를 들면 「고도사적답사기」(장도빈 1933년 5월 3일), 「부여 8경」(1934년 1월 2일 및 홍득순 1935년 8월 16일-24일) 등 부여를 소개를 하는 글을 연재하여 명소로서의 부여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갔다.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가 1939년 6월 10일 재단법인 부여사적현창회로 명칭을 바꾸었다(부여군 1939, 社教 제46호 인가).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가 명칭을 변경한 데에는 그 다음 해가 황기(皇紀) 2,600년에 해당되는 해로 일본 국내외적으로 대대적인 기념사업이 전개되었던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1940년 11월 10일, 진무(神武)천황의 즉위 2,600년을 기념한다 하여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의 "외지(外地)"에서도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준비되었다. 메이지(明治) 시대에 들어서서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의 지배역사를 강조하여 국민통합을 도모해 왔던 일본으로서는 황기 2,600년 기념행사는 천황의 '신민(臣民)'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인간의 감각기관에 호소하였다. 라디오를 통하여 축하 만세 봉창(奉唱)의 합성이 일본 국내외로 울려 퍼져 나갔으며, 황거(皇居) 앞에는 '정신적인 지주'를 알현하기

위해 많은 '신민'들이 모였다(鈴木 淳 1999: 216). 이뿐만 아니라, 각종 연설회, 특별전시회, 박물관 건립 등이 추진되었다.

황기 2,600년 기념은 천황과 관련이 깊은 행사였기 때문에 일본 국내뿐 아니라 의지에서도 천황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사업이 전개되었는데, 그것이 이른 바 성지(聖地)의 정비였다. 따라서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의 명칭변경은 부여가 "내선일체의 영지(靈地)"로서 부상되기 시작한 움직임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전개되면서 "내선동조(內鮮同祖)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백제, 신라, 임나 등 일본과 인연이 많은 지역에 박물관의 설치 또는 향토연구회 등을 조직하여 내선인의 교통(交通) 및 혈연적 관계의 인식을 심화"(조선총독부 1939a)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1939년 4월 20일자로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장이 조선총독 앞으로 제출한 「기부행위 변경의 건」과 함께 명칭변경 신청에서,

본회(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 인용자주)는 설립 이후 부여에 있는 백제의 고적 유물의 보존을 위해 큰 공적을 올리고 있으며 이번 관폐대사(부여신궁: 인용자주) 조영(造營)의 뜻을 받을 뿐만 아니라 총독부박물관 부여분관의 설치도 있고 1939년도부터 그 실현을 보기에 이르고 이에 의해 종래 큰 사명을 이루어온 차제에 본회의 종래 주목적인 고적유물의 보존소개, 제2의 목적으로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백제사적의 현창에 노력하고 아울러 고대의 내선일체(內鮮一體)의 미과(美果)를 구현하고 아름다운 사실에 의하여 설치된 여러 시설의 실현 발전에 협력하고자(후략: 인용자주)

부여에 '신도(神都)' 건설과 박물관 건립은 "내선일체의 성지(聖地)" 순례 관광과 무관하지 않았다. 당시 유일하게 신도(神都)였던 이세(伊勢) 외에 의지에 또 다른 신도를 건설하고자 부여에 관폐대사 부여신궁(扶餘神宮)을 조영하는 계획을 세웠다(손정목 1990). 1939

년 3월 8일에 발표된 부여신궁 조영계획에 의하면 응신(應神), 제명(齊明), 천지(天智) 외에 신공황후(神功皇后)를 제신으로 하려는 뜻은 “응신천황, 제명천황, 천지천황, 신공황후의 시대에는 피차(彼此)의 문화는 교류하고 민족은 융합하여 상호 돈목(敦睦)함으로써 일가(一家)의 화친(和親)을 이루고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화(聖化)와 내선일체의 연유(緣由)와 동아공영의 대의를 만대에 걸쳐 소시(昭示)해 온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 높으신 성덕의 정도는 만민이 함께 추모 경앙(敬仰)해 마지않는 바”(조선총독부 1939b)에 있었다. 부여신궁의 터를 확보하는 데 국비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부여사적현창회에 908평을 기부한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부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독부 지령에 의하여 1층의 콘크리트 건물로 대략 20만 원의 공사비로 총독부박물관의 부여분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1940년 가을을 개관으로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어 1939년 4월 1일에 전통적인 기와지붕 양식의 1층의 부여분관이 개관하기에 이르렀다(최석영 2001).

이상 대체로 1920년대 후반부터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가 중심이 되어 부여에 관광명소의 토대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그러면 부여가 “내선일체의 영지(靈地)”로서의 관광명소로 부상하는 데 지금까지 고찰한 외적 토대 외에 관광의 텍스트(text)에 해당하는 고적에 대해 “영지” 순례지에 어울리게 어떠한 해석의 기술(記述)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부여 고적에 대한 재해석과 ‘영지(靈地)’로서의 공식화

1) 득이신성(得爾辛城) = 청마산성(靑馬山城)

1899년의 『忠淸南道邑誌』와 1929년 이병연(李秉延)이 집대성한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부여군 고적조)은 청마산성이 부여군

동쪽 10리쯤에 위치하며 주위가 십 수리(數里)이고 그 안에 경룡사(驚龍寺)가 있고 절 북쪽으로 대석(臺石)이 있는데 규모가 매우 크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 사이 청마산성에 대한 위상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33년에 제정된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에 의하여 고적 제60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1937).

이것으로 보아 1930년대에 들어서서 청마산성은 부소산성과 더불어 '보존'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청마산성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 가해진 결과로서, 후술하듯이 한 개인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청마산성은 식민지 상황에서 조선사편수회에서 조선사 편찬에 참여한 동양사학 전공의 이마니시 류(今西龍) 외에 토속학, 인류학 전공의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최석영 1999), 그리고 백제관 관장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郎)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마니시는 1927년 5월에 부여를 조사한 후 청마산성에 대해 「백제 멸망사에 이성(城)이라고 생각되는 것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 기이」하다고 하면서 「후대(後代)에 지은 것이 아닌가 다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今西龍 1970 수록). 즉 그는 청마산성을 일본과의 관계사에서 파악하지 않았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서 청마산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었다. 1940년대에 도리이에 의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긴 하였는데(조선총독부 1942: 106),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930년대 청마산성이 새롭게 해석된 맥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경주분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이전에 백제분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오사카 긴타로는 1932년에 부여에 와서 가장 먼저 “득이신성(得爾辛城)”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는 우리 측 사서에 나오지 않지만 『日本書紀』권 제19 흠명천황(欽明天皇)조 9년에 나

오는 “동(冬) 10월에 370인을 백제에 보내 득이신(得爾辛)에 성을 쌓는 것을 도왔다”는 기록을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호재(好材)로 보고 득이신성의 위치를 찾는 데 노력을 경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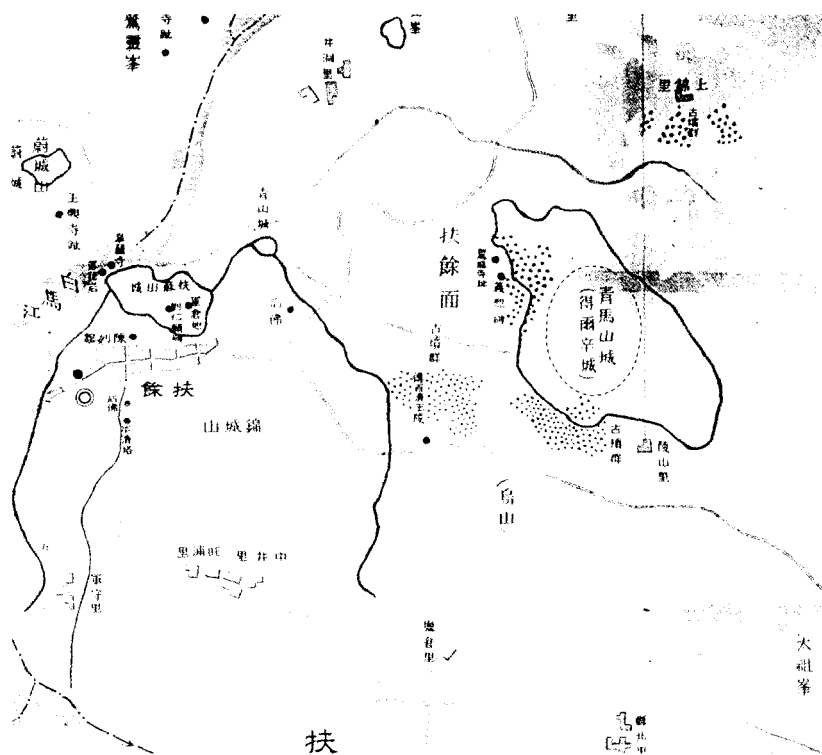
오사카는 부여고적보존회의 사무 인수인계와 백제관의 정리도 뒤로 미룬 채 매일 성지를 찾아 답사한 끝에, 청마산성(靑馬山城) 서쪽 입구의 마을 이름이 독정(篤亭)이며 이전에는 득신(得辛), 독신(獨辛), 독신(篤莘)이라고도 썼다는 점에 주목하고 득이신(得爾辛)을 이 일대를 가리켰던 옛 지명으로 보았다(참고적으로 현재 이 마을을 독쟁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일단 그는 고지명(古地名) 등을 조사하여 부여의 동쪽 약 1리에 있는 청마산성이 바로 득이신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확신을 더해 준 것은 중국의 『북사(北史)』 왜국전에 “신라, 백제 모두 倭를 대국(大國)으로 여긴다”라는 기록에 의거, 청마산성 서쪽 입구 부락에 사는 어느 노인에게 “이 성은 누가 만든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백제시대에 대국인(大國人)이 만들었다”라고 답한 것이었다. 그는 그 산성의 최고봉에 서서 만세삼창을 불렀다는 것이다(재단법인 부여사적현창회 1934).

이와 같은 오사카 긴타로의 청마산성에 대한 비정(比定)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百濟舊都扶餘古蹟案内記』(이하 안내기)와 『百濟舊都古蹟名勝寫眞帖』(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 1934)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안내기』와 『사진첩』 모두 성왕이 웅진에서 부여로 천도한 후 10년이 지난 시기의 10월에 흠명천황이 장졸 370인을 파견하여 왕성의 전위(前衛)가 될 만한 득이신(得爾辛)에 쌓은 성이 바로 청마산성이며, 이로써 당시 일본이 적극적으로 백제원호에 힘을 썼다는 것을 증명하는 귀중한 유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사진첩』의 부록 「扶餘古蹟地圖」에도 지도에서와 같이 청마산성의 팔호 안에 아예 득이신성 이라고까지 표기하였다.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에서 장려한 관광코스 가운데 청마산성이



포함된 것은 당연하였다. 청마산성 외에 장려한 관광코스를 보면 부여고적보존회 진열관 → 부소산(도보 또는 자동차) → 고란사 → [유람선] → 구교리(舊校里) 혹은 규암진을 거쳐 다시 부여로 돌아와 남영공원, 평제탑, 조왕사, 백제왕능, 청마산성, 삼층사비를 관람하는 코스였다. 이 때 자동차는 아마도 안내용 자동차였던 것으로 보인다(부여군 1929).

해방 직후에도 얼마 동안은 청마산성에 대한 관심이 있어(이성국 1953: 78 ; 최상수 1955: 88-91) 청마산성은 적어도 부여 관광코스 가운데 하나였다(홍사준 1961: 170). 그러나 이제는 도군(道郡)에서 정해 놓은 부여 관광명소 코스에는 공식적인 관광코스에서는 일제 강

점 시기에 강조되던 청마산성은 빠지게 되었다(충청남도 2001).⁶⁾

해방 이후 지역에서 청마산성에 대한 실제 정밀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어쨌든 학계에서는 청마산성이 사비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아마도 유사시에 반격을 위하여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성주탁 1993: 41). 이제 청마산성은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잊혀져 가는 명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2001년 6월 부여군(문화관광과)에서 발행한 「부여군관광안내지도」에는 청마산성이 주요 사적 및 명승으로 소개는 되고 있지만, 부여군과 충청남도에서 제작한 또 다른 안내 브로슈어에는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청마산성에 가 보아도 아무런 설명조차 되어 있지 않고(부여군 2001b; 충청남도 종합관광안내소 2001), 관광안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도 단지 산성이라는 설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2) 낙화암에 몸을 던진 주체 = 백제여인과 일본여인

최근 필자가 부소산성을 현지답사하면서 낙화암에 대한 기술(記述)의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다. 『삼국유사』에 오늘날의 낙화암에 몸을 던진 주체가 단지 “궁녀”로 기술된 이래, 낙화암(또는 낙화대)이라는 명칭은 15세기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다(『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여현 고적조). 이 때 낙화암에 몸을 던진 주체는 분명 “궁녀”들이었다. 그 주체가 “3천 궁녀”로 회자되기 시작한 시점을 16세기 문신 민재인(閔齋仁)의 「백마강부」에서 찾고 있다(부여군 & 공주대학교 편 2001: 296).

6) 충청남도 종합관광안내소에서 발간한 『백제문화와 낭만, 추억의 충남여행』(2001년 12월)에서는 당일 코스로서 부소산성 → 낙화암, 고란사 → 구드래 공원 → 정립사지 → 부여박물관 → 궁남지 → 백제왕릉원, 1박 2일 코스로서 정립사지 5층 석탑 → 궁남지 → 부여박물관 → 백제왕릉원 → 부소산성 → (백마강유람선) → 구드래 → (1박) → 수북정 → 성흥산성 → 무량사 → 만수산 자연휴양림을 권장하고 있다.

1960년대 부여분관(현, 국립부여박물관) 홍사준 관장의 『백제문화와 부여』(1961)에서 낙화암을 “떨망하는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여 3천 궁녀가 꽃처럼 떨어졌다는 바위”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2001년 충청남도와 부여군에서 발간한 부여 관광 안내책자를 살펴보면 낙화암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주체를 “3천 궁녀”에서 “수많은 백제 여인”(충청남도 종합관광안내소 2001; 부여군 2001a)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백제떨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려는 데에 있다고 하지만(필자 인터뷰) 어땠든 해방 이후 또 다른 맥락에서의 재해석과 소비에 관해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그렇다면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는 낙화암에 대한 해석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1930년 이전까지만 해도 낙화암에 몸을 던진 주체는 “3천 궁녀”(오종섭 1926: 119)이었으나 1930년대에 들어서서 주체가 바뀌기도 하였다.

1932년 백제관의 관장으로 취임한 오사카 긴타로는 낙화암에 몸을 던진 사람들 가운데에는 백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유는 백제를 도와주기 위해 부여에 와 있던 일본인 혹은 일본계통의 요직들은 대체로 가족을 동반하였고 유명한 사람들로서 대별왕(大別王)이나 소흑길사(小黑吉士) 등을 들었다(大坂金太郎 1934). 따라서 그는 낙화암에 몸을 던진 주체를 기존의 백제의 궁녀라는 해석에 일본 ‘여인’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의 변화와 관련하여 부여고적보존회에서 1929년 낙화암에 백화정(百花亭)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백화정을 건립한 주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스기 미츠로(杉三郎)의 언급이고 또 하나는 1929년에 편찬된 『朝鮮襄興勝覽(조선환여승람)』설이다. 스기 미츠로는 백화정을 세운 목적이 당시 군수 홍한표(洪漢杓)의 부여 재임(在任)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杉三郎 1943). 『조선환여승람』에서는 백화정의 건립자는 홍한표라고 하여 부

여고적보존회의 관여를 암시하고 있다.

오사카 긴타로의 낙화암에 대한 재해석을 사실로 받아들여 낙화암에 몸을 던진 주체를 “일본과 백제의 3천의 아름다운 사람”(坂田政次郎 1934: 126)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물론 낙화암에 대한 오사카 긴타로의 재해석이 전적으로 정착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일부 지식인들은 여전히 낙화암에 몸을 던진 주체를 “궁녀”(高松健太郎 1935)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일제 식민지 상황 하에서 고대 백제와 일본과의 교류라는 관점에서 낙화암에 몸을 던진 주체에 대한 재해석이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3) 고란사 = ‘일본인 최초의 유학지’

고란사는 비구니 사찰로서 창건연대는 분명하지 않고, 현지 고란사에 대한 설명문에 의하면 제17대 아신왕대 창건되었다는 설, 궁녀들의 원혼을 달랠 목적에서 고려 초기에 창건되었다는 설이 기술되어 있는데⁷⁾ 기록에 의하면 창건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편찬(1530년)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창건 연대는 보다 고증이 필요한 주제로 생각되며, 여기에서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1930년대에 들어서서 고란사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해석의 역점은 일본인이 조선에 최초로 유학을 한 곳이 바로 고란사였다는 점에 있었다. 1920년대 후반, 부여 8경 가운데 고란사를 설명하

7) 『신증동국여지승람』(부여현 고적조)에는 “고란사(高蘭寺)”로 나와 있는 것이 아마도 고란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아닐까 생각한다. 17세기 중엽경의 『동국여지(東國輿地志)』에는 이 사찰을 “皐蘭寺”라고도 부른다고 적고 있다. 조선시대 정조대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忠淸道邑誌』의 「부여현읍지」에는 고란사(皐蘭寺)로만 나와 있다. 이와 같이 고란사에 대한 기록이 15세기 중엽의 사서에 나타났지만, 이는 사찰은 이미 그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는 글에서는 고란사의 명칭유래, 고란사 주변의 자연적 형세 등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오사카 긴타로는 스순천황(崇峻天皇) 원년(587) 3월에 시마메(島女), 도요메(豊女), 이시메(石女) 3명이 부여에 유학을 와서 기거한 곳⁸⁾이 바로 고란사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그와 같은 추정이 적어도 지식인들 사이(佐瀬直衛 1938; 坂田政次郎 1935)에서는 '사실(史實)'로서 굳어져갔다.

그의 고란사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수용되었는가를 단언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지만 1934년 10월 부여를 방문한 백제사 연구자 시부자와 게이쥬(澁澤敬三)⁹⁾의 일화와 부여를 소재로 다룬 소설에서 적어도 확인할 수 있다.

시부자와는 1934년 봄 백제관에 높이 8척의 비자나무(榧) 1주를 기증하고, 부여의 문화재를 둘러보고 당시 백제관 관장 오사카 긴타로와 부여의 문화재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1400년 전의 일본인이 동경했던 곳은 부여였으며, 무엇보다도 최초 이 곳에 유학을 온 것은 세 사람의 여성이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하였습니까?」

8) 현재 고란사 뒤 벽에는 최초의 일본유학생들이 배를 타고 고란사로 들어오는 모습을 그려 놓았다. 현재 부여문화원 김인권 사무국장은 이 벽화가 그려진 것을 1970년대 초가 아닌가 보고 있다.

9) 시부자와 게이쥬(1896-1963)는 1936년에 이미 5회째 조선을 방문하였다. 그는 일본 소화(昭和)시대의 실업가(實業家) 시부자와 에이이찌(澁澤榮一, 1840-1931)의 손자로 동경제국대학 졸업 후 요코하마 마사카네(横浜正金)은행에 취업하였으며, 1925년에는 조부가 창설한 제일은행의 대표로서 1942년에는 일본은행으로 옮겨 부총재, 총재를 역임하고 1945년 10월에는 시대하라(幣原) 내각의 장상(藏相)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국제전신전화사장, 문화방송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재계에서 큰 활약을 보였다. 한편 그는 생물학이나 민족학에도 관심을 보여 집 안에 상민문화연구소(常民文化研究所)를 두어 많은 연구자들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민족민족학협회(日本民族學協會)나 인류학회(人類學會)회장도 역임하였다. 일본민족학협회 1957 참조.

(大坂金太郎 1967: 100)라고 오사카 긴타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오사카는 「이 언덕 밑에 고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승 절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혹은 이 곳에 세 명의 여성 모두가 수업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大坂金太郎 1967: 100)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오사카 등의 고란사에 대한 해석은 소설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유포되기도 하였다. 당시 부여를 소재로 다룬 소설들 가운데 1941년 7월 24일부터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된 김동인의 장편 역사소설 『백마강』(대중서관 1982)이 그것이다. 소설의 절정 부분에 백제의 위기 앞에 바다를 건너 부여로 향하는 원정군을 등장 시킴으로써 김동인은 백제와 일본과의 '선린관계' 이미지를 통하여 당시의 슬로건 "내선일체", "대동아공영"의 역사적 합당성을 소설로써 표현하였다(한수영 2002). 아울러 그는 고란사를 일본인 여성들이 처음으로 유학을 와서 수학한 곳으로 묘사함으로써 당시 오사카 등의 고란사에 대한 해석을 적극 수용하여 소설로 구성하였다.

또한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에서는 고란사를 양국의 '선린' 관계를 상징하여 당시의 상황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소재로 보고 건축물이 협소하고 훼손이 심하다는 이유로 개수(改修)하여 관광명소의 하나로 만들었다.

4. 맺음말

문화에 대한 설명 또는 해석은 어떤 시대에 누가 그 해당 문화를 설명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문화의 설명자 또는 해석자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는 객관적 또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다. 왜냐 하면 문화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대변·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권력 중심 또는 주변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일제 강점 상황 하에서의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 활동에 관심을 둔 이유는 그 활동이 부여의 관광명소화와 깊은 관련이 있었으며, 부여의 관광명소화는 부여의 '영지화(靈地化)', '성지화(聖地化)'라는 맥락과 밝혀보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그와 같은 움직임은 오늘날 부여가 관광명소가 되는 데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해방 이후에도 해방 전의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 재단법인 부여사적현창회와 같은 명칭의 조직들이 발족되어, 부여문화의 보존·개수 및 현창에 노력하였다.¹⁰⁾

일제 강점상황에서 일본인 관료들과 조선인과 일본인 유지들을 회장, 부회장, 이사(理事)로 구성한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1929년 발족)는 이전의 부여고적보존회를 계승하여 고적의 보존·수리 등 부여의 관광명소로서의 개발에 힘을 기울였다. 따라서 부여에 전국적인 관광명소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1930년대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해방 후에는 점차로 잊혀져 가는 관광지가 일제 강점 상황에서는 고대일본과의 관련성에서 '강조'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 거의 관심조차 없는 청마산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관심은 많지만 일제 강점 상황 때와는 '기술(記述)'이 다른 것으로서 낙화암이 있다. 그것들은 식민지적

10) 해방 후 일제 강점 시기의 부여고적보존회의 활동이 내선일체 구현을 목적으로 역사를 왜곡하였다고 비판하고 1953년 4월 27일에 부여사적현창회가 부여군청 회의실에서 발족되었다. 회장에는 부여군수 박명진(朴明鎭)(재임 기간 1952. 10. 29-1954. 4. 24)을 선출하고 사적의 현창, 고적보호 및 개수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여러 활동을 사업내용으로 하였다.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자 배치, 식당, 숙박시설의 구비, 휴게실, 독서실 등 설치, 사적 관련 문헌 간행, 사진기 및 쌍안경 등 기타 등산도구 확충, 해수욕장 건설, 지방 명산물의 제공, 고적의 화장(華裝), 야간 오색전 등 사용, 고적지에 수림 조성으로 녹화운동 전개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웠다. 이 조직이 언제 해체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상황이라는 틀 안에서 고대 일본과 관련되어 새롭게 또는 다르게 해석되고 심지어 ‘조작’된 측면 또한 없지 않다. 『일본서기』에 기술된 득이신(得爾辛)에 쌓았다는 성을 청마산성으로 비정하고 낙화암에 몸을 던진 주체에 백제 궁녀뿐만 아니라, 일본 여인들도 포함시켜 낙화암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처한 백제를 일본이 도와주었다는 사실의 또 다른 ‘창출’이었다. 이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양방 우호적인 관계로 고대사에 비추어서 치환·설명하고 현실적인 지배관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창출’ 행위가 오사카 긴타로우 개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가 문화의 해석과 ‘기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그것이 부여문화의 발굴, 발견과 동시에 통치의 정당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에게 그것은 고대 일본의 ‘고향’을 복원하는 작업이기도 하였다.

일반인들은 어느 ‘기술’이 사실인가를 물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화를 관광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방 후 낙화암에 대한 ‘기술’이 또한 변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낙화암에 몸을 던진 주체가 3천 궁녀 → 백제인·일본인 → 3천 궁녀 → 백제여인으로 변하고 있다. 또 어떠한 맥락에서 청마산성과 낙화암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향후 시야를 넓혀 당시 관광그림엽서에서 부여를 어떻게 이미지화시키고 있었는가, 그리고 1939년에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가 재단법인 부여사적현창회로 바뀌어 가기 전후 부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향토교육의 내용은 무엇이었는데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참고문헌

권태역

2001 “동화정책론”, 『역사학보』 제172호: 335-365, 역사학회.

김광역

1998 “일제시기 토착 지식인의 민족문화 인식의 틀”, 『비교문화연구』 제4호: 79-120,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김태웅

2002 “1915년 경성부 물산공진회와 일제의 정치선전”, 『서울학연구』 제18호: 139-167,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동아일보 1925년 8월 22일자

동아일보 1928년 7월 17일자

대중서관

1982 『김동인문학전집』 12권.

박현수

1998 “한국문화에 대한 日帝의 視角”, 『비교문화연구』 제4호: 35-77,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부여군

2001a 『부여군관광안내지도』.

2001b 『백제의 고도 부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여군 발행,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편

2001 『백제를 빛낸 인물들』.

손정목

1990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서울특별시

2000 『서울교통사』.

성주탁

1993 “백제 사비도성과 일본 大宰府성곽의 비교고찰”, 『고대 한일문
화교류의 새로운 인식』: 37-53,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충
남대학교백제연구소.

『世宗實錄地理志』(1454)

『新增東國輿地勝覽』扶餘縣 古跡條(1530)

李成國

1953 『百濟大觀』 제1집, 사단법인 부여사적현창회.

이지원

1993 “1930년대 民族主義 系列의 古蹟保存運動”, 『東方學志』 77·
78·79합집: 745-77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

최상수

1955 『부여의 고적과 전설』 大哉閣.

최석영

1995 『전통의 날조와 창조』(역서) 서경문화사.

1997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 서경문화사.

1999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권력』 서경문화사.

2001 『한국 근대의 박람회, 박물관』 서경문화사.

2002 「식민지시대 고적보존회와 지방의 관광화」, 『아시아문화』 18:
111-121,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충청남도 종합관광안내소

2001 『백제문화와 낭만, 추억의 충남여행』.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5 『답사여행의 길잡이 4·충남』 들베개.

한수영

- 2002 “고대사 복원의 이데올로기와 친일문학 인식의 지평 — 김동인의 『백마강』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65, 봄호: 186-207, 실천문학사.

홍사준

- 1961 『백제문화와 부여』 학원사.

石田茂作 & 高橋健自

- 1927 『滿鮮考古行脚』.

今西龍

- 1970 “百濟都城扶餘及び其の地方”, 『百濟史研究』圖書刊行會 수록.

大坂金太郎

- 1967 “在鮮回顧十題” 『朝鮮學報』 제45: 71-110, 朝鮮學會.

金子 淳

- 2001 『博物館の政治學』 青弓社.

吳宗燮

- 1926 “扶餘の八景”, 『朝鮮』134호(7월호): 116-122, 조선총독부.

佐瀬直衛

- 1938 “博物館週間に内鮮一體の往時を語る”, 佐瀬直衛 1939 『万二千峰』 大海堂.

佐藤作郎

- 1931 “朝鮮に於ける觀光事業に就て”, 『朝鮮』 제194호: 44-64, 조선총독부.

坂田政次郎

- 1935 “半月城址を訪ふ”, 『朝鮮』 제243호: 124-127, 조선총독부.

재단법인 부여사적현장회

- 1934 『扶餘を見るには』.

134 최석영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

1934 『百濟舊都扶余古跡名勝案内記』.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

1934 『百濟舊都古蹟名勝寫真帖』.

杉 三郎

1943 『趣味の扶餘』 迎月堂.

鈴木 淳

1999 『新技術の社會誌』, 中央公論新社.

高松健太郎

1935 “曾遊の錦”, 『朝鮮』 제243号: 111-114,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학무국사회교육과

1937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要覽』.

조선총독부

1935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要目』.

1939a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答申書”(9월), 『日帝下支配政策資料集』 제16권 (동경: 고려서림, 1993년).

1939b 『朝鮮』 5월호.

1940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7·8월).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일본박물관협회

1939 『博物館研究』 제12권 10호(10월).

일본민족학협회

1957 『民族學研究』 제21권 제1·2호.

부여군

1929 『財團法人扶餘古蹟保存會設立關係書』.

1939 『財團法人理事變更登記綴』.

John H. Hamer

1994 "Identity, Process and Reinterpretation-The Past Made Present and the Present Made Past", *Anthropo* 89; 최석영 역, 『전통의 날조와 창조』(서경문화사, 1995) 수록.

〈Key concepts〉: Re-interpretation, Buyeo Historical Relics Preservation Foundation, a symbol of one body between Chosun and Japan, a famous tourist attraction

A Study of Re-interpretation on the Relics in Buyeo, a capital of Bakje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Choe, Seok-Yeo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Buyeo has been a famous tourist attraction with the images as ‘a symbol of one body between Chosun and Japan (內鮮一體)’, ‘a sacred place’ beyond simply a old capital of Bakje (百濟) since the second-half of 1920’s.

In 1920’s, Buyeo Historical Relics Preservation Foundation (BHPPF, 財團法人扶餘古蹟保存會) played an important part in making Buyeo a famous tourist attraction in colonial period. BHPH tried to build the bases like a traffic sign, lodgings, pleasure boat, museum and so on for visitors to see-sighting Buyeo with convenience.

In addition to it, Osaka Kintarou (大坂金太郎), a member of BHPH, tried to reinterpretate the historic relics in Buyeo and make it a symbol representing the fact that Chosun and Japan were in the close relationship in ancient period. Therefore h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upporting the discourses such as ‘the same ethnical root in both Chosun and Japan (日鮮同祖)’, ‘the same cultural root in both Chosun and Japan (日鮮文化同源)’. For example, he would search for the cattle in site of Dukisin (得爾辛) that was written in 『日本書紀』(*Nihonshoki*), and he asserted that the cattle was

true of Chongmasangsung (靑馬山城), based on linguistic analysis, literature and oral narratives. The problem is that his reinterpretation was recognized and generalized as a historical fact. His assertion was published in pamphlet or tourist guidebook. Also Chongmasangsung became one of tour courses in Buyeo.

He also reinterpreted Nakwhaam (落花岩) and Goran Buddhist Temple (皐蘭寺). He asserted that Goran Buddhist Temple was the first place where Japanese studied abroad in ancient times and Nakwhaam was the place where not only court ladies of Bakje but also Japanese women lost their life in the face of the attack by Allied Shilla (新羅)-Tang (唐).

He would represen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Chosun and Japan in ancient times, that is to say Japan helped Chosun in crisis and justify Japan's rule over Chosun by reinterpreting the relics in Buyeo. In such a situation were burn Buyeo's images as a famous tourist attraction.